https://doi.org/10.21186/IPR.2019.4.1.029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나타난 사회복지 연관성 연구

양철수
세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복지경영) 박사과정

A Study on Social welfare relevance Appearing in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Chol-Soo Yang
Department of Business Management,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나타난 사회복지 연관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석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가족력과 개인력을 자세하게 밝혀 클라이언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경청하고 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둘째, 정신분석기법에서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친화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정신분석이론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이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현재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넷째, 개입과정 중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반응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신경증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모든 해석의 기법들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관한 통찰력을 증진시켜 주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법들이다. 정신분석이론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주제어 :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 사회복지

Abstract This study is to discusses the relevance of social welfare in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oanalytic theory details the client's family history and personal history to help them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they have today. At this time, social workers actively listen to clients and try to get various information.Second, when used in psychoanalytic techniques, the resistance of the client can be interpreted and analyzed to help the client maintain friendly relationships with the client.Third, psychoanalytic theory can properly apply the client's current state of mind by understanding the potential conflicts or emotions that exist in the client's unconscious mind.
Fourth, during the process of intervention, social workers need to deal well with the client's transition response. This process allows social workers to obser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stimuli that can cause nervousness in clients.In conclusion, all the techniques of interpretation used in psychoanalytic theory are, after all, techniques that help social workers improve clients' insight into their problems and help clients solve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themselves. The psychoanalytic theory is widely applied in social welfare.

Key Words : Freud, psychoanalytic theory, social welfare

Received 12 December 2018, Revised 20 December 2018
Accepted 04 January 2019
Corresponding Author: Chol-Soo Yang(Hansei University)
Email: sos570105@daum.net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는 정신분석이론으로 192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실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인간행동의 이해와 정신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채택함으로써 '시행착오의 예술'로 불리던 사회복지실천은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의식에 의해인간행동이 결정되고 성격의 기본구조가 초기 아동기에 결정된다는 정신분석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내담자 문제의 원인인 과거의 정신내적 갈등(intrapsychic conflict)이나 정신적 외상을 밝혀내어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권중돈, 2014: 219-220)[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단주의학파'(diagnostic schools)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쌓게 하는 학문이자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학문으로 전문성을 갖는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하는 기본이 되는 지식을 주었다(구혜영, 2015: 45)[2]. 실제로 다양한 인간의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과거와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인류의 원초적 심성에 대한 이해를 도운 점, 특히 개인의 인성발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와 같이 정신분석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중적 초점(dual focus)이라 할 수 있는 인간과 환경 중에서 인간의 정신내적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나치게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 인간관과 이에 따른 실천을 조장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분열과 사회복지실천상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권중돈, 2014: 219)[1].

본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는 사회복지와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이를 이론화하고자 한다.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내용 분석

2.1 프로이트의 생애와 사상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1856년 5월 6일 모라비아(Moravia, 체코 동부) 지방의 프라이베르크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그의 아버지는 세 번째 결혼한 아말리에(Amalie)와의 사이에서 프로이트를 낳았다. 그의 이복형은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했다. 이복형제들에 비해 어머니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고, 김나지움(Gymnasium, 독일의 중등교육기관) 7학년 내내 최우수 학생으로 총명했다. 빈대학교(University of Vienna) 의학부에 입학하여 폰 브뤼케(Ernst Wilhelm von Brueke, 1819~1892) 실험실에서 신경해부학(Neuroanatomy)을 공부하였다. 졸업 후 얼마 동안 뇌의 해부학적 연구를 하였고, 코카인의 마취작용을 연구하여 우울증 치료제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1885년 파리 살페트리에르(Salpetriere) 정신병원에서 샤르코(Jean-Martin Charcot, 1825~1893)의 지도 아래 히스테리(hysteric) 환자들을 관찰하였다. 1889년 여름에는 낭시(Nancy, 프랑스 북동부)의 베르넴과 레보 밑에서 최면술을 보게 되어, 인간의 마음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 즉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브로이어(J. Breuer)는 히스테리 환자에게 최면술을 걸어 잊혀 가는 마음의 상처(심적 외상)를 상기시키면 히스테리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프로이트는 브로이어와 공동으로 그 치유의 방법을 연구하였고, 1893년 카타르시스(Katharsis, 정화)법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치유법에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최면술 대신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여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하였고, 1896년 이 치료법에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은 후에 그가 수립한 심리학의 체계까지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1900년 이후 그는 꿈·착각·말실수와 같은 정상 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고, 1905년에는 유아성욕론을 수립하였다. 초기 그의 학설은 무시되었으나, 1902년경부터 점차 공명하는 사람들(슈테켈, 아들러, 융, 브로일러 등)이 나타났으며, 1908년에는 제1회 국제정신분석학회가 개최되어 잡지 「정신병리학·정

신분석학연구연보」(1908~1914), 「국제정신분석학잡지」 등이 간행되었다. 또 1909년 클라크대학교 20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강연한 일은 정신분석을 미국에 보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사변적 경향을 강화하여 원초아·자아·초자아와 같은 생각과, 생의 본능인 에로스,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Thanatos) 등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나치스에 쫓겨 런던으로 망명하였고, 이듬해 암으로 죽었다. 그의 유골은 지금 런던의 골더스 그린(Golders Green)에 안장되었고, 그가 마지막 저서를 집필했던 마레스필드(Maresfield) 가든 20번지에는 프로이트 박물관이 세워졌다. 그곳에서 프로이트는 지금도 세계화시대를 맞이한 정신분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꿈꾸는 방문자를 맞으며, 그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강응섭, 2010: 30-31)[3].

파시즘으로 열망하는 역동의 시대를 거슬러 살았던 그는, 나치즘의 시기를 보낸 유대인이었다. 그가 정신분석을 하게 된 두 가지 요소 역시 유대혈통과 특수했던 가족환경을 들었다. 그는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법을 자신의 혈통을 통해 배웠고, 나이 차이가 많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심리학적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그가 좋아했던 성경과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그의 정신분석학적 텍스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나르시즘' 같은 이론은 문학작품이나 신화를 통해 설명되었으며, 그의 작품 곳곳에는 성경이 등장하게 되고 무의식 개념을 새로운 미학으로 인문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로이트의 특징은 수많은 임상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당시에 유행하던 최면요법 대신, 그는 수많은 환자들과의 면대면 대화를 통하여 그의 무의식이론체계의 핵심이 될 개념을 도출했고, 개별적인 치료가 아닌 보편적인 무의식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미숙한 인간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무의식이 생성되며, 꿈과 환상은 기억 조각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언제나 기억은 환상이나 욕망에 의해 왜곡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전개되고 있는 그의 논리는 책 속에 담겨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문과 작용하며 나치가 현대에 부여했고 끔찍했던 보편성으로 부정되었던 개별성과 주관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사상가로 프로이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다고 평가되며, 심리학·정신의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사회심리학·문화인류학·교육학·범죄학·문예비평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주요 저서에는 『히스테리 연구(Studien über Hysterie)』(1895), 『꿈의 해석(Die Traumdeutung)』(1900),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Zur Psychopathologie des Alltagslebens)』(1902),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1905), 『토템과 터부(Totem und Tabu)』(1913), 『정신분석입문(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1917), 『쾌락 원칙을 넘어서』(1920), 『새로운 정신분석입문(Neue Folge der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1932), 『정신분석학 개요(Abriß der Psychoanalyse)』(1940) 등이 있다.

2.2 정신분석이론의 개요

정신분석이론(psychoanalytic theory)은 20세기 서구문명의 지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성격발달이론이다. 정신분석이론이란 인간의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어 무의식적인 성적·공격적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이론이다. 프로이트 이론의 특징은 인간의 성격발달에서 성적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정서영 외, 2017: 36)[4].

정신분석이론은 프로이트의 학설로 그의 이름을 따서 '프로이트주의(Freudism)'라고도 부른다. 그의 학설은 '자유연상법(free association)'을 사용한 신경증 치료기술로서, 또 인간심리의 해명으로서 성립하였다.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이란 꿈이나 말의 차이, 글의 차이 등의 현상을 포착하여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계속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의식되지 않고 심리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억압되어 온 심리활동을 읽어내고, 그에 기초하여 신경증의 치료법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1896년 그는 이런 방식을 '정신분석(psychoanalysis)'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신경증의 치료에서 얻은 지견을 꿈, 남 앞에서 빗나간 말을 하는 것, 농담이라는 형식으로 방출시키는 속마음 등을 연구하여 1900년 이후 자기 나름의 심리학 체계를

세우고 이를 정신분석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학'을 붙이지 않은 것은, 자기의 학설이 처음부터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감히 정신분석학이라고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신분석기법을 응용한 분야를 굳이 심리학으로 표현하자면, 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영역의 연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심층심리학(depth psychology)'이라고 부른다. 심층심리학은 무의식적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정신역동학(psychodynamics)' 또는 '역동심리학(dynamic psychology)'이라는 용어로도 표현한다. 감각 및 지각 또는 사고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초창기 심리학 연구가 마음이나 영혼(psyche)에 대한 정적인(static) 접근방법이라면 심층심리학은 정신과정에서의 동적인(dynamic) 요소, 즉 동기나 경향성, 관심, 정서, 갈등 등을 비롯하여 그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이다. 곧 '동적'이라는 용어는 내적인 에너지의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심층심리학 분야는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거나 발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주로 응용되고 있다(윤가현 외, 2016: 29-30)[5].

그의 심층심리학(depth psychology)은 심리를 의식·전의식·무의식의 세 층으로 구별하고, 그것에 따라 심리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생물학주의적이며, 기계론적인 기법이 특징이다. 심리의 기초를 본능에 두고 본능은 '불쾌'를 회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말하면 종 및 개체 보존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 두 본능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가 주로 논했던 것은 종족보존본능, 즉 성욕이었으며, 그것으로 심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욕 그대로의 발현은 사회적 제약에 부딪혀 그 충족이 억압된다. 거기서 성욕이라는 '본원적 욕구(이것을 'Id' 또는 'Es'라고 하며, 그 발현 에너지를 'Libido'라고 부른다)'는 현실생활에 적응하는 힘에 의해 '억압'된다.

이와 같이 그는 무의식의 근저로부터 오는 성적 본능과 그것을 억압하는 힘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원적 욕구 '에스'와 그것을 받고 있는 '자아', 그리고 자아가 스스로를 제어하는 '초자아'가 있어, 이 초자아에 반하는 경우에 자책감이 생기고 여기로부터 우울이나 열등감 등이 생기게 된다. 억압되어 있는 '에스'에 의한 욕구의 힘(콤플렉스)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방시키는 것에 신경증 요법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학설은 현대에는 융이나 아들러 등에게 수용되어 변용도 되며, 또한 사회사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있는바, 이들을 가리켜 신프로이트학파라고 한다. 신프로이트학파(neo-Freudians)로는 히틀러에 쫓기어 독일로부터 미국으로 건너간 호나이(K. Horney), 프롬(E. Fromm), 설리번(H. S. Sullivan), 카디너(A. Kardiner) 등이 대표적이고, 여기에 린턴(R. Linton), 달라드((J. Dollard), 미드(George Herbert Mead) 등을 꼽기도 한다. 물론 프로이트는 죽는 순간까지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수정하였다. 신프로이트학파는 정통 정신분석학이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중요한 것들을 첨가하였다.

2.3 인간관

프로이트에 의해서 창시된 정신분석은 인간심리에 대한 결정론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행동은 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 동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9세기에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은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1859)을 통해 진화론을 주창하였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갈등의 존재로 보았다. 본능이 추구하는 쾌락과 현실의 갈등,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갈등, 적극성과 수동성의 갈등이 우리를 지배한다. 때문에 프로이트는, 인간은 삶이 지속되는 한 갈등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즉, 삶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가 가진 세 가지 자아인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가 서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자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Plato, BC 427~347)이 제안한 서로 갈등을 겪는 정신의 세 가지인 욕구(appetite), 이성(reason), 영혼(spirit)과 유사한 개념이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인간의 정신을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이륜마차의 전차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이 비유에서 두 마리 말 중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말'은 욕구를, 철저하게 훈련된 '순종의 말'은 영혼을, 말을 통제하며 전차를 이끄는 '마부'는 이성을 나타낸다(노안영,

2018: 179)[6].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적이다. 즉, 비이성적인 힘인 본능적 충동이나 무의식적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관점에 의하면, 아무런 원인도 가지지 않는, 즉 저절로 발생하는 현상이란 없다. 그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은 기쁘고, 괴롭고, 또 분노한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적 조건이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지만, 프로이트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즉,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의 외적 조건보다 오히려 개인의 심리 내적 조건이다. 이러한 심리결정론(psychic determinism)에서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이 심리 내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이 겪는 갈등은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심리적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적 원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다.

인간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기보다는, 과거 성장기 동안의 생활 경험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다. 정신분석에서는 생애 초기 6년 동안의 발달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과 심리성적 에너지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갈등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개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rlow, 1989[7] ; Baker, 1985[8]). 인간에 대한 이러한 결정론적인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면의 그 무엇을 발견하려는 '분석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 적절하고 타당한 원인을 이해할 때까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신분석에서는, 개인이 즉각적으로 자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그 어떤 힘, 즉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프로이트는 비이성적인 힘인 본능적 추동(drive)이나 무의식적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삶의 목표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행동은 생물학적인 욕구와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되며 비합리적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본능은 프로이트이론의 핵심으로서 원초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심리 에너지로 구성된다(김춘경 외, 2016: 73-74)[9].

프로이트는 이중본능이론(dual instinct theory)을 통해 본능을 크게 삶의 본능(life instinct)과 죽음의 본능(death instinct)을 강조한다. 삶의 본능은 '에로스(Eros)'라고도 하며, 배고픔과 같이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 종족을 번식시키는 성과 같은 것 등을 말한다. 성에 대한 본능은 개인의 정신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것이 영향력이 가장 큰 삶의 본능이다. 성 본능에 내재된 리비도(Libido, 라틴어의 '소망', '욕구'에서 유래)라는 것인데, 이는 생존본능의 힘을 일컫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나토스(Thanatos)'라고 하는 죽음의 본능이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파괴에 대한 경향을 말한다. 타나토스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함으로써, 또는 영화 관람이나 운동경기를 관람하면서 평상시에 조금씩 화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댐 둑이 한방에 무너지듯, 한꺼번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 폭력, 살인, 방화 등을 하게 되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분열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이우언 외, 2017: 150-151)[11]. 원시적 본능의 파괴적 힘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김계현 외, 2016: 178)[10]. 첫째, 현실적 제약을 무시할 정도로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 개인은 매우 충동적이 된다. 둘째, 본능적 욕구 자체를 부정하여 그것이 없는 것처럼 억압하는 경우다. 개인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가 드러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불안해지면서 그러한 불안을 피하거나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제(방어기제)를 청결시킨다. 그런데 이 기제가 현실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려면 성욕이나 공격성 같은 본능적 욕구를 과도하게 따르거나 완전히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삶과 죽음의 본능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서로 융합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본능적 표현이지만, 음식물을 파괴하여 섭취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본능이다. 그리고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병적으로 혼합되면 인간은 강간 또는 피학적 성행위, 수간 등 변태적 성행위를 하기

도 하고, 성행위를 몰래 훔쳐보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2.4 정신분석이론의 핵심 개념

2.4.1 인간의 의식수준

프로이트가 제시한 지형학적 모델은 그의 저서『꿈의 해석(Die Traumdeutung)』(1900)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정립시키는 과정에서 지형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성격(personalty)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 인간은 많은 층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임상 초기 마음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지형학적 모형(topographic model)을 구상하였다. 즉, 프로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식의 수준을 가시화한 일종의 지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전체의식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다. 의식은 각성상태의 의식을 말하고, 전의식은 의식 바로 밑에 있어 보통 때는 인식되지 않지만 쉽게 끄집어 낼 수 있는 생각을 말한다. 전의식의 내용은 종종 백일몽이나 몽상에 빠져 있을 때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무의식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의식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의식의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2.4.1.1. 의식

의식(Consciousness)은 개인이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함한다. 의식의 내용은 새로운 생각이 정신에 들어오고, 오래된 생각은 정신에서 물러나면서 계속적으로 변한다. 의식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말한다. 이것은 지각・운동・활동・감정 등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며, 꿈・심상・사고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세계와 접촉한다. 생리적 욕구나 심리적 욕구가 존재할 때 또는 외부 자극이 존재할 때, 개인이 그 욕구나 자극대상에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의식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의식 속에 있던 내용은 개인의 주의나 관심이 다른 것으로 돌려지게 되면 곧 전의식이나 무의식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프로이트는 정신세계의 극히 일부만이 의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경험하는 일들은 선택적 여과과정을 거쳐 극히 일부만이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의식은 정신생활의 중심이 아니며,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빙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정신생활의 더 큰 부분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것으로 비유되는 무의식이며, 무의식적인 내용이나 동기를 의식적인 것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정신분석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4.1.2. 전의식

전의식(Preconscious)은 현재 의식되지는 않지만 주의집중을 통해 지난 경험이나 생각이 의식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의식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신분석치료에 의해 무의식 속에 잠재되었던 내용이 전의식으로 나오고 전의식수준에서 다시 의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만난 동창생의 이름,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 자신의 생일, 부모의 고향,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등과 같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알아낼 수 있는 정신세계이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있는 자각으로서 꽤 용이하게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의 부분이다. 엄격히 말하면, 전의식은 무의식의 부분이지만 쉽게 거기에 저장된 기억, 지각, 생각이 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의식의 아래 부분이다.

전의식은 개인이 그 내용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의식의 많은 부분은 개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발적으로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의 일부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의식은 마음속에서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2.4.1.3. 무의식

프로이트의 가장 큰 공헌은 무의식에 대한 인식이다. 무의식(Unconscious)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 억압된 재료들, 의식영역 밖의 욕구나 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무의식에 대한 임상적인 증거는 꿈, 말실수, 망각, 자유연상이나 도출된 자료, 최면 암시, 정신적 증상의 상징적 내용 등이다. 또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전의식은 현재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여 회상하려고 마음을 집중하면 전의식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각,

생각 등을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신이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정신병리에서 지배적인 힘으로 보았으며, 성격의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탐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성격의 이러한 영역에 인간행동의 중요한 인과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무의식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의식적 내용은 변장되고 상징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환상과 꿈을 해석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의 존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임상적 증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김춘경 외, 2016: 77-78)[9].

① 최면 후 암시(post-hypnotic suggestion)

상대방에게 최면을 건 상태에서 "당신은 오늘 2시에 아무개에게 전화를 걸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는 최면에서 깨어난 후 시계가 2시를 알리면 최면에서 지시받은 행동인 전화를 거는 행동을 하게 된다. 왜 전화를 걸었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나도 몰라요. 괜히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라든지 또는 다른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한다.

② 꿈(dream)

무의식적인 욕구, 소망, 갈등은 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상을 통해 간접적인 충족을 시도한다. 배고픈 사람은 흔히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잔칫상 앞에 앉아 있는 꿈을 꾼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③ 말의 실수(slips of the tongue)

질병이나 피로에 의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언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장이 개회인사에서 "의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의회를 빨리 폐회해 버리고 싶었던 의도가 공공연하게 표현되어 나온 것이다.

④ 망각(oblivion)

자아를 위협하거나 또는 의식수준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불쾌한 생각은 쉽게 잊힌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세계를 3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정신분석을 '심층심리학(depth psychology)'이라고 한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마치 빙산처럼 대부분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 심층심리학은 이와 같은 무의식을 연구하며, 일상적인 정신생활을 무의식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2.4.2 인간의 성격구조

프로이트의 초기 성격구조이론의 중심이 되는 개념은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성격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1923년에 발표한 『자아와 원초아(The Ego and the Id)』에서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을 성격의 삼원구조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심리적 구조를 제안했으며, 특히 자아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매우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음, 현실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마음, 도덕과 양심을 중시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이우언 외, 2017: 153)[9].

인간의 정신이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가설을 프로이트가 최초로 사용한 후, 지금은 정신병리를 논할 때 이 생각의 방법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성격의 각각 다른 부분이 상충하는 역동도 잘 이해될 수 있고 또 구조도 설명이 되지만, 이를 구체적인 현실로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 가지의 각기 다른 기능과 '힘의 할거'라고 하겠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구조학적 모형의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비록 세 부분이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더라도 각 부분들은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성격구조는 다음과 같다(노안영, 2018: 180-181)[6].

〈표 1〉 인간의 성격구조

구조	의식성	내용과 기능
원초아 Id	무의식적	기본적인 충동(성과 공격), 결과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만족 추구, 이성과 논리는 통하지 않음. 즉각적·비합리적·충동적
자아 Ego	현저하게 의식적	원초아의 충동과 초자아의 억제 사이를 중재하는 집행부, 현실을 검증, 공간과 시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고려함.
초자아 Superego	의식적 및 무의식적	이상과 도덕, 완전 추구, 부모로부터 내면화됨. 관찰한다·지시한다·비평한다·금한다. 만족에 대한 한계를 지움. 개인의 양심이 됨.

출처: 표갑수 외(2016: 172)[12].

2.4.2.1. 원초아

원초적 자아(Id) 또는 자아의 원초라는 뜻의 이 한자 조어는 프로이트에서는 '그것'이라는 독일어 3인칭 대명사인 'Es'이다. '그것'의 내용은 유전된, 신체조직에서 유래하는 충동으로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리적 욕구보다는 성과 공격의 충동들이다.

원초아는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원초아는 세 가지 자아 중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진다. 원초아는 무의식이 지배하며 쾌락의 추구가 주요한 목적이다. 주요한 유기체의 본능적 욕구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생물학적 욕구이다.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물은 갈증 해소의 만족을 준다. 몹시 허기질 때 먹은 음식은 또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준다. "배고픔에 장사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등의 말들은 식욕 본능을 반영한 말이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배고픔의 서러움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요즈음의 젊은 세대는 보릿고개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생사의 문제이다. 식도락가가 아닐지라도 먹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일매일 느낄 것이다. 먹고사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생물학적 욕구가 성욕이다. 인간의 종 보존과 쾌락을 주는 주요한 본능적 욕구는 성욕이다.

2.4.2.2. 자아

자아는 의식의 세 수준인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생 이후에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자아도 역시 쾌락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서 쾌락을 추구한다. 즉, 외부세계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쾌락을 원하는 원초아를 조정하며 쾌락을 찾는다. 자아는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긴장을 감소시킬 대상을 발견할 때까지 에너지 방출을 미루는 현실 원리에 의해 청결한다. 원초아는 막무가내로 충동을 표출하지만 자아는 긴장을 참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다. 자아의 지배자는 원초아, 초자아, 현실이다. 자아는 이 세 지배자를 조정하며 기능하는 성격의 집행자이다.

2.4.2.3. 초자아

초자아도 자아처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자아는 부모의 가치기준을 동화함으로써 자아에서 발달된다. 즉, 초자아는 주로 부모나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아 인생 초반기에 오이디푸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사회적·판단적 측면을 나타낸다. 초자아는 쾌락이나 현실 원리보다는 도덕이나 완벽 원리에 의해 청결한다. 역시 초자아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외부적 요구와 원초아의 쾌락 추구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원초아와 초자아가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과거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되었다. 즉, 원초아는 유전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자아는 의존적인 어린 시절에 부모나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2.4.2.4.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관계

우리 내면의 이 세 구조는 각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강해지면 다른 것이 약해지는 관계에 있다. 어린애 같이 원하는 것은 즉시 가져야 하고, 현실도 도덕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논리만 따지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있다. 옳고 그름만 따지며 욕망도, 자기 이익도 초월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각각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가 된다. 원초아와 자아만 기능하고 초자아는 발달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기꾼,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유능한 범죄자가 생각난다.

세 구조의 세력관계에는 발달적 변화도 있어서, 사춘기와 갱년기같이 호르몬 변화가 클 때, 원초아 추동이 강해지면서 자아와 초자아 기능이 일시적으로 교란, 약

화되기도 한다. 훨씬 짧은 시간 범위에서 주기적이거나 일시적인 변화도 있다. 잠잘 때 자아의 기능이 약해져서 원초아적 일차과정이 우세해지는 것처럼, 술에 취하거나 몸이 아플 때 또는 외적 유혹(예: 밤에 도승의 암자에 찾아온 황진이)이 있을 때에도 평소의 세력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세 구조 중 대들보는 물론 '집행자' 자아이다. 자아는 우선, 원초아의 무차별적 요구를 상대하여 즉각적 긴장 해소를 미루고 개체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원초아가 어린애처럼 막무가내로 보챈다면 초자아는 부모처럼, 흔히 실제의 부모보다 더 엄격하게 자아를 감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두 구조의 요구를 자아는 현실 속에서의 행위를 통해 충족시켜야 하는데, 현실세계는 현실세계대로 나름의 제약과 요구가 있다. 이를 테면, 배가 고프다고 돈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교도소가 기다리고 있고 부모가 쫓아낼지도 모른다.

원초아, 초자아, 현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자아는 불안으로 반응하는데, 위험의 출처에 따라 이를 각각 원초아 불안(신경증적 불안), 초자아 불안(죄책감), 현실불안(공포)이라고 부른다. 불안은 위험이 있으므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이다. 현실불안 또는 공포를 느낄 때 자아는 객관적 위험을 피하거나 공격할 가능성 등을 찾아내려 한다. 나머지 두 유형의 불안에는 대처하기가 힘들다. '위험'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한국심리학회, 2004: 426)[13].

왜 어떤 사람은 유난히 초자아가 강하거나 혹할 정도로 엄격한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이성의 접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성격은 어떻게 발달하는가'라는 물음이 된다.

2.4.3 심리성적 발달단계

프로이트는 성격이 심리성적 발달단계(psychosexual development)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심리성적 단계의 주요한 특징은 정신에너지인 리비도가 신체 부위의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섯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이다. 인간이 출생하여 이러한 다섯 단계에 따라 성격을 형성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은 지나친 좌절 또는 만족 때문에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리비도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않는 것을 '고착(fixation)'이라고 한다(노안영・강영신, 2011: 76)[14].

여기서는 프로이트가 제안한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4.3.1. 구강기

구강기(oral stage)는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때 영아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어 입으로 빨고, 삼키고, 깨무는 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 이때의 영아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입에 넣고 빤다. 보통 영아는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대상부재(objectless)의 상태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 자신과 분리된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즉,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두려워 울지만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영아는 자신과 분리된 타인, 즉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때부터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욕구불만을 가지는 따위의 최초 '양가감정(ambivalence)'을 느낀다. 즉, 어머니에게 애정과 동시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고착된 성인이 심리적 갈등에 처하면 퇴행하여 음식에 집착하거나, 연필과 같은 사물을 물어뜯거나, 구강기적 쾌감을 위해 흡연이나 음주에 몰두하는 행동을 보인다.

2.4.3.2. 항문기

항문기(anal stage)는 생후 18개월에서 3년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어 영아는 괄약근을 조절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배설을 참아 내장의 압력을 증가시켜 마지막 방출의 쾌감을 높이려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배설물에 흥미를 느껴 그것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양육자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면서 영아는 배변훈련(toilet training)을 받는다. 이런 배변훈련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영아는 배변을 참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일반화되면 항문적 보유(anal-retentive) 성격이 되어 지나치게 인색하고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항문기에 고착된 성격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항문기의 폭발적 성격으로 물건을 낭비하고 자신을 지저분하게 함으로써 반항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가 정한 규율에 지나치게 동조하여 발달된 성격인 항문기의 강박적 성격으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정돈하고 싶은 욕구에 집착한다. 이 시기에 고착된 사람은 반동형성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여 배변훈련을 시키는 부모와 권위적 인물에게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 대신에 철저한 복종을 표현한다.

그러나 배설 행동을 두고 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부모에 대한 애증, 즉 양가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 배변훈련에 따른 칭찬과 처벌은 영아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배변훈련을 둘러싼 부모와 영아 간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발되거나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김춘경 외, 2016: 77-78)[9].

① 배뇨・배변에 관여하는 척추신경은 보통 생후 1년 반에 발달이 완료되는데, 간혹 이러한 신경조직 발달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아동에게 부모가 무리하게 대소변을 가리라고 요구할 때

② 영아가 바지를 벗고 입을 능력이 생기기 전에, 또는 화장실・변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가 무리하게 대소변 가리기를 요구할 때

③ 대소변을 싼다고 부모가 벌주거나 야단칠 때

④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을 겁내거나 양변기 속이나 재래식 화장실 안에 자기가 통째로 빠져 버리지 않을까 하고 겁내는 것은, 이 시기 영아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계속 배변 가리기를 요구할 때

그러므로 이 시기에 배변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긍지감이 높고, 독립적이며, 수치심이 없고, 자기주장을 하는 원만한 성격이 된다. 그러나 배변훈련을 너무 빨리 시작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면 오히려 완고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고집스럽고, 때로는 지나친 순종을 보이는 등 항문고착형 성격을 갖게 된다.

2.4.3.3. 남근기

남근기(Phallic stage)는 3~6세까지를 말한다. 남아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갖는 시기라 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를 갖는 시기인데,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하였다. 이 시기는 리비도가 유아의 성기에 집중되어 자신의 성기를 남의 것과 비교하고 싶어 하고, 남녀의 성기가 서로 다른 것에 많은 호기심을 갖는다.

이 시기에 남아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키스하고, 함께 자려는 행동을 보이고, 커서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한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구하는 경쟁자로서 아버지는 너무 크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세불안(Castration Anxiety)'을 느낀다.

특히, 여아들은 이미 거세당해 남성의 성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불안을 느끼고, 결국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구를 포기하면서 아버지를 동일시한다. 여아의 경우 남아와 비교하여 자신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음을 알게 되며 '남근선망(Penis Envy)'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실망을 아버지에게서 보상받고자 아버지와 결혼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구를 포기한다. 프로이트는 남아의 경우 거세불안 때문에 근친상간적 욕구를 포기하지만, 여아의 경우 포기 이유가 뚜렷하지 않아 남성이 여성보다 초자아가 더 많이 발달되었다고 주장하여, 최근 여권주의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시기에 고착된 사람은 남성의 경우 대부분 경솔하며, 과장되고, 야심적이며, 항상 남자다움을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난잡하고, 유혹적이며, 경박한 기질을 갖거나, 아니면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여 남성을 능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2.4.3.4. 잠복기

잠복기(latency period)는 6세부터 사춘기 이전의 12~13세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아동의 성적・공격적 환상이 무의식 속에 잠복하여 리비도가 특정 신체부위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때의 에너지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지적 활동, 친구와의 우정 따위에 집중되어 성적 관심은 줄어들며, 따라서 이드보다 자아와 초자아가 강해진다. 그러나 잠복기에 고착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에 대한 정상적 관심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동성 간의 우정에 집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에너지도 특별히 한정된 곳이 없으며, 성적인 욕구가 억압되어 심리적으로 비

교적 평온하고 잠잠하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성적으로 잠시 침체된 시기이다.

이 시기를 무난히 넘기면 학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져 자신감과 적응능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전 발달단계의 과제가 미해결상태로 남아 성적·공격적 충동이 잘 제어되지 못한다면,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누적된 학업 실패는 열등감을 유발한다. 또한 두려운 나머지 내면의 충동을 과도하게 제어하다 보면, 오히려 성격발달을 정체시키게 되고, 외현상 조숙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강박적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4.3.5. 생식기

사춘기가 시작되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생식기(genital stage)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과 생리적 요인으로 인해 그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감정이 크게 강화되어 성적 에너지가 성인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이때 다시 오이디푸스 감정이 의식 속으로 올라와 청소년들은 부모 앞에서 불안하고,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 편안한 안정감을 느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춘기 이후 중요한 과제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독립'이며, 이러한 독립이 오랫동안 부모에게 의존하여 오던 상태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독립이 매우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생식기적 성격을 가장 이상적인 성격 유형으로 보고, 이런 성격의 사람은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사회적·성적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책임감이 잘 발달되어 이성과의 사랑이 만족스럽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는 <표 2-2>와 같다.

〈표 2〉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단계	연령	주요 특징
구강기	0～18개월	· 구강활동을 통한 쾌를 추구 · 원초아가 지배함.
항문기	18개월～3세	· 배설활동을 통한 쾌를 추구 · 자아와 원초아가 지배함.
남근기	3～6세	· 성기를 통한 쾌를 추구 · 자아, 원초아, 초자아의 완성
잠복기 (잠재기)	6세～사춘기	· 성적 본능의 욕구에서 자유로운 시기 · 탐색, 기술의 습득에 관심
생식기 (성기기)	사춘기 이후	· 이성에 대한 호기심 · 성숙한 성관계 확립

출처: 신명희(2013: 33) 재인용[15].

3. 정신분석이론의 사회복지 연관성

3.1 정신분석이론의 치료 개념

프로이트는 1896년에 '정신분석(Psychoanalysis)'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자유연상기법을 환자의 치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 시기는 정신분석의 공식적인 출발점이다. 정신분석은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정신분석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철학적 접근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유력한 치료의 방법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굳혀 왔다. 정신분석의 등장으로 인간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후에 생겨난 치료이론 중 상당수는 정신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신분석적 치료이론은 내담자가 겪는 심리적 문제의 의미와 원인을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왜냐하면 이는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출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담자가 걸어온 거의 모든 삶의 과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신분석적 치료를 '뿌리치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겉으로 드러난 누렇게 뜬 잎사귀보다는 그러한 불량한 잎사귀를 만들어 낸 뿌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즉 외현적인 심리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낳은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이장호 외, 2009: 58-59)[16].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정신분석적 치료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삶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성과는 매우 크다.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 왔는지, 그것이 현재의 모습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깊고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보다 성숙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정신분석적 치료를 통해 얻게 되는 열매다. 정신분석치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유력한 치료이론으로서 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새로운 치료이론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정신분석을 치료에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

다(김충기・강봉규, 2003: 86-87)[17].

첫 번째 입장은, 치료기법으로서의 정신분석을 가능한 치료과정에 도입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의 내용을 정면으로 분석함을 주안점으로 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부 심리학자는 상당히 고도의 정신분석학적인 훈련을 받아 비의사인 분석자(lay analysist)로서 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신병리학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내담자를 정신과 의사가 아닌 분석자가 장기간 분석치료하는 일은, 경험이 풍부한 정신과 분석의사의 협의지도 또는 개별지도하에 그것도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 입장은, 정신분석이론을 내담자의 성격을 이해・평가하기 위해 응용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정신분석이론을 보통의 치료과정에 많은 응용을 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이해와 치료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예컨대, 학교에서 자주 교사에게 반항을 하며, 교칙을 위반하는 한 학생의 공격성도, 정신분석이론을 기본으로 여러 정보에 비추어 진단한 결과, 원래는 부친에 대한 적대감이 다른 권위자이기도 한 학교나 교사에게 전위(displacement)된 것인데, 그것이 학교 측의 거절과 처벌로 이어져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의 무의식적인 측면이 학교당국에 의해 이해된다고 하면 학교측의 태도는 학생을 이해하는 쪽으로 쉽게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그 학생의 태도나 행동도 어느 정도 변화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억압된 충동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왜곡되고 억압된 성적 쾌락이 내담자의 주요한 문제가 된다. 정신분석자는 무의식에 숨겨진 억압된 비밀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노안영, 2018: 186)[6].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표는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즉, 강화된 자아의 힘으로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은 일종의 뿌리치료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의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채 자신의 감정, 행동,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요소를 의식의 영역 밖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더 이상 무의식이 왜곡된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정서영 외, 2017: 39)[4].

정신분석의 목표는 단지 원인을 멈추게 함으로써 결과를 멈추는 것(즉, 원인이 되는 무의식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심리적 증상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에 비유된다.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철저히 이해하는 것, 자신을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본능적 충동에 휘말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성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정신분석치료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다(이장호, 2009: 80)[16].

결국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표는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자기 통찰을 위해 과거의 억압된 세계를 깊이 탐색해 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의식화시켜 적응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게 한다. 그러한 결과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각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의 통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2 사회복지사의 역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론을 사회복지현장에 접목할 경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구혜영, 2015: 45)[2].

첫째, 모든 행동은 의미가 있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원조관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정보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청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박탈된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결과를 평가하고 사정해야 한다. 자아방어기제의 활용 유형과 활용 정도를 사정하고 자아방어의 성숙한 수준뿐만 아니라 융통성, 유약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동기와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클라이언트가 원조자인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반응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특히, 비강요적인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상, 감정, 사건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해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환류 혹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사회복지에 접목할 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명확히 기억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3 정신분석이론의 활용

정신분석이론을 적용한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기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수환 외, 2017: 152-153)[1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석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가족력과 개인력을 자세하게 밝혀 클라이언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경청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둘째, 정신분석기법에서 사용하는 자유연상기법을 활용할 때, 때때로 클라이언트는 아동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없게 되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복지실천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해석하고 분석하였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친화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개입과정 중에 실수 행위를 한다든지, 실언 등을 할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실수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이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현재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사정할 수 있다.

넷째, 개입과정 중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반응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적 욕망이나 공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줌으로써 그 욕망의 강도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신경증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4. 정신분석이론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의 평가

프로이트의 이론은 20세기의 서구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전 인류문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그는 성격심리학의 발달에 대단히 큰 공헌을 하였다. 프로이트는 성격발달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인간발달단계의 특징과 심리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러한 학문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이근홍, 2015: 181)[19].

프로이트의 이론적 한계점은 환경보다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개인의 문제를 과거 결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기에 정신분석이론을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적용하였을 때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이론은 사회복지실천을 함에 있어서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인간의 성과 무의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식되지 않은 채 인간의 성격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들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는 데 많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에 공헌한 바가 크다. 특히, 프로이트 이전에 열정과 경험위주의 사회사업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근거와 진단,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및 원조 등의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과학성과 전문화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장수환 외, 2017: 153)[18].

또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신병리를 가진 성인들의 치료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이론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심리성적 발달이 남근선망에 의해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여권주의자들의 강한 반론을 받았으며, 인간을 무의식적 본능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다(표갑수 외, 2016: 186)[12].

정신분석이론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최옥채 외, 2015: 47 재인용).

첫째, 모든 인간을 근친상간적 욕구 따위의 성적 자극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

위기로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특히 어린아이조차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컸다.

둘째, 프로이트는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즉, 여성이 남근선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초자아의 발달이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탓이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여권주의자들의 강한 반론을 받았다.

셋째, 무엇보다 강한 비판은 과학성에 대한 비판이다. 정신병리를 가진 성인들의 기억이나 환상, 혹은 꿈을 통해 보편적인 아동발달이론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단지 개인적 견해일 뿐 과학적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발달에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의 강조로 대인관계적·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매우 비관적이어서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 속의 본능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과 일부 기본관점들은 거의 모든 심리이론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며, 특히 무의식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깊은 통찰과 경험 없이 무의식을 파헤쳐만 놓고 해결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을 적용시키는 데는 신중함과 조심성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 사회복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인간행동의 이해와 정신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유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신분석이론의 인간관은 인간심리에 대한 결정론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행동은 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 동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기보다는, 과거 성장기 동안의 생활 경험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정립시키는 과정에서 지형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성격(personalty)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 인간은 많은 층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임상 초기 마음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지형학적 모형(topographic model)을 구상하였다. 즉, 프로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식의 수준을 가시화한 일종의 지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전체 의식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다. 의식은 각성상태의 의식을 말하고, 전의식은 의식 바로 밑에 있어 보통 때는 인식되지 않지만 쉽게 끄집어 낼 수 있는 생각을 말한다. 전의식의 내용은 종종 백일몽이나 몽상에 빠져 있을 때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무의식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의식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의식의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프로이트의 초기 성격구조이론의 중심이 되는 개념은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성격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1923년에 발표한 『자아와 원초아(The Ego and the Id)』에서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을 성격의 삼원구조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심리적 구조를 제안했으며, 특히 자아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매우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음, 현실을 인식하는 합리적인 마음, 도덕과 양심을 중시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성격이 심리성적 발달단계(psychosexual development)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심리성적 단계의 주요한 특징은 정신에너지인 리비도가 신체 부위의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섯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이다.

정신분석이론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정신분석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가족력과 개인력

을 자세하게 밝혀 클라이언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경청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둘째, 정신분석기법에서 사용하는 자유연상기법을 활용할 때, 때때로 클라이언트는 아동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없게 되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해석하고 분석하였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친화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개입과정 중에 실수 행위를 한다든지, 실언 등을 할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실수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이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현재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사정할 수 있다.

넷째, 개입과정 중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반응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신경증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모든 해석의 기법들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관한 통찰력을 증진시켜 주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법들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이론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대개 깊이 있는 정신분석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자아기능을 강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며, 클라이언트가 성숙해지고 정서적인 유약함을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돕는 데 실천적 함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클라이언트가 회복되도록 돕는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References

[1] 권중돈(201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2] 구혜영(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신정.

[3] 강응섭(2010). 『프로이트: 무의식을 통해 마음을 분석하다』. 파주.경기: 한길사.

[4] 정서영(2017). 『최신 상담이론과 실제』. 파주.경기: 양서원.

[5] 윤가현 외(2016).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6] 노안영(2018).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7] Arlow, J. A.(1989). Psychoanalysis. In R. J. Corsini (Ed.). *Current psychotherapies*. Itasca. IL: Peacock : 19-64.

[8] Baker, E. L.(1985). Psychoanalysis and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In J. L. Lynn & J. R. Garske (Eds.), *Contemporary psychotherapies*. Columbus. OH: Merrill/ Prentice Hall : 19-67.

[9] 김춘경 외(2016).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0] 김계현 외(2016). 『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11] 장수한 외(201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고양. 경기: 공동체.

[12] 이근홍(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고양. 경기: 공동체.

[13] 최옥채 외(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경기: 양서원.

양 철 수(Yang, Chol-Soo)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세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복지경영) 박사과정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지도교수
- (주)동우크린케어 대표이사
- 관심분야 : 복지경영, 사회복지, 노인복지
- E-Mail : sos570105@daum.net